

# 신약의 복과 한국교회의 복 개념

송영목(고신대학교 신학과 조교수)(철학/세계관 6-2)

## 논문초록

이 논문은 목적은 한국교회의 복 개념을 신약의 복 개념에 비추어 진단하는 것이다. 신약의 복 개념을 위해서 먼저 복음서의 8복을 살펴보고, 신약 서신에서 바울, 베드로, 요한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국교회는 신약이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존재론적인 복을 간과하고, 기복적 사상에 빠져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교회의 왜곡된 복 개념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 현실적인 적용으로 마무리 한다.

**주제어:** 복, 신약, 한국교회, 기복주의, 존재론적 복

## I. 서론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sup>1)</sup> 그러나 이 현상은 개선되기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교회의 복 개념과 불신자의 그것은 많은 면에서 구별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 이런 차제에 다시 한 번 한국교회의 복 개념을 신약 성경의 복 개념에 비추어 진단해 보면서, 오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한국교회의 복 개념을 살펴본 후, 신약의 복 개념을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살펴본 후, 한국교회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한국교회의 복 개념 진단

한국교회의 기복주의적 요소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신년이면 ‘축복 대 성회’가 열린다. 여기서 ‘축복’(祝福)은 ‘복을 빈다’는 의미의 동사이기에 부절절하다.<sup>2)</sup> 성도는 복을 빌거나 받을 목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송구영신예배 시, 담임 목사가 미리 적어둔 성경 구절들 중에서 하나를 제비뽑듯이 뽑아 그 말씀대로 1년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런 구절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겠다는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sup>3)</sup> 예배 중 헌금 기도는 “성도가 십일조와 같은 헌금을 바쳤으니, 더 많은 돈을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틀린 지적일까?<sup>4)</sup> 봉사와 헌금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발로가 아니라, 보상심리로 하는 경향이 많다. 한국교회의 이런 관례는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복 개념을 더욱 고착화 시킨다. 요즘도 종종 열리는 신유집회는 주로 육체의 질병치유에 초점이 있지만,<sup>5)</sup>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죄 사함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마 9:6; 눅 18:42). 신유집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통전적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

1) 박철수(1990: 16, 20, 115, 165)는 한국교회의 샤머니즘, 바알 및 mammon숭배를 비판한다.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은 순종이 필요 없고, 다만 신상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면 되었다. mammon숭배는 물질적 번영을 최고 복이라고 본다. 박철수는 기복주의를 ‘이단’과 ‘저절신앙’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2) 예배 마지막의 ‘축도’(祝禱)보다 ‘복의 선포’가 옳다. 설교자가 복을 선포할 때, ‘아멘’하기만 하면 복이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샤머니즘적 요소이다. 세계종교현장연구소장인 민병소는 심지어 성도에 의해서 신격화된 목회자를 ‘신들린 무당’에 비유 한다(참고, 최중현, 1993: 65).

3) 이것은 한국교회의 현상만은 아니다. Horton(2009: 95-97, 105, 253)은 그리스도 없는 미국교회의 실상을 지적 하면서,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의 능력’, 노만 빈센트 필의 가장 유명한 제자인 수정교회 담임목사인 로버트 솔러의 주장 위에, ‘믿음의 말씀 운동’(Word of Faith Movement)으로 알려진 적극적 사고방식의 오순절주의적 버전이 땅 끝까지 ‘행통복음’(prosperity gospel)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본다. 베니 힌과 조엘 오스틴(‘궁정의 힘’, ‘잘되는 나’의 저자)은 노골적으로 행통의 복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국적인 입맛(칭의, 정죄 대신에 낙관적인 도덕주의 및 종교포용주의 등)에 맞는 이교적 세계관을 유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담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벼운 율법(law lite)이 아니라 복음을, 인생의 코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관이며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좋은 충고(우리가 해야 할 일)가 아니라 좋은 소식(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 모 범자 예수님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 자기 계발의 원천인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대사관인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

4) 최중현(1993: 65)은 대 심방 때에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복채’와 비슷하다고 본다.

5) 이와는 정반대로 입신, 환상, 방언, 쓰러짐 같은 신비로운 체험만 추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도 사만의 종교적 심성과 연결되는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참고, 최중현, 1993: 72).

플러신학교에서 피터 와그너와 찰스 크레프트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이윤호는 한국교회가 복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성경의 저주를 소홀히 했다고 본다. 출 20:5, 민 14:18, 렘 31:29, 32:18, 겔 18:1-32, 마 18:25, 27:25, 행 7:51-52, 눅 6:26 등에 기초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generational curse) 이론은 비평적인 고찰을 요한다. 이윤호(2001: 156, 215, 257)에 의하면, 가계에 흐르는 죄와 하나님의 저주는 후손에게 유전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유전적인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가계 저주론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도 저주 아래 살 수 있고 자유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윤호의 주장대로, 후손이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조상이 지은 죄를 알고 회개하며, 저주가 무효하다고 선포하는 기도, 가계를 축복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가? 가계 저주론은 저주를 풀고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사머니즘과 다를 바 없다.<sup>6)</sup>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율법과 죄와 사망과 죄의 몸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신 사역은 무엇인가?(참고. 롬 8:38-39). 그리고 이윤호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문맥 안에서 정당하게 주석된다면, 가계 저주론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세는 공동연대와 책임을 져야 했던 독자들에게 출 20:5의 ‘삼사 대까지 벌하고’와 6절의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를 대조하도록 한다(참고. Walton, 2010: 135).

지금은 많이 교정되었지만 한국교회의 천국 개념은 여전히 미래 지향적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않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 확장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얼마나 되는가?

### III. 신약의 복 개념

신약에서 복은 주로 명사형 *euvlogia*와 형용사 *makarioj*로 표현된다. *hk'r'b.*의 헬라어 번역인 *euvlogia*는 주로 누가복음과 바울의 주요 서신들과 히브리서에 등장하지만, 바울의 짧은 서신들, 일반 서신, 요한서신,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나타나지 않는다(참고. Becker, 1986: 212-217). *euvlogia*는 세속 헬라어가 아니라 구약의 해당 단어로부터 종교적 의미를 전수받았다.<sup>7)</sup> *%rB*의 헬라어 번역인 동사

6) 이윤호(2001: 186)는 ‘계속되는 재정의 부족’ 즉 가난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중 하나로 본다. 한국교회 안의 사머니즘적 요소에 대해서는 최중현(1993: 64-65)을 보라. 예를 들어, 질병을 마귀의 소행으로 쉽게 단정하고, “병마(病魔)야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귀신은 물러갈찌어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7) 구약의 복은 특별히 두 단어로 표현 된다: *yrev.a*(왕상 10:8; 시 33:12; 84:4; 잠 3:13; 사 30:18; 56:2; 단 12:12)와 *%rB*(창 5:2; 9:1; 12:2; 24:36; 30:27; 39:5; 레 25:21; 민 24:1; 신 2:7; 12:7; 15:4-6; 16:15; 시 3:8; 67:1; 107:38; 잠 10:22; 욥 2:14; 학 2:19; 말 3:10).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경우가 많다(창 48:15; 49:25).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자연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한정한다. 하나님은 바다와 공중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다(창 1:22).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참고. 창 5:2)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명하셨다(창 1:28).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사한 명령을 내리셨다(창 9:1).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창 12:2).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 하나님은 그의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 하셨다(창 22:18). 하나님은 이삭에게 백배의 수확이라는 복을 주셨다(창 26:12).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창 30:30).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창 39:29; 41:52). 선민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복을 받았고(신 33:29),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실인처럼 살려고 결심하는(참고. 민 6:1-21)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했다(민

euvloge,w는 LXX에 400회 이상이나 등장한다.

신약에서 euvlogi,a와 euvloge,w의 뜻은 다양하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할 수 있고(히 7:1),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눅 1:64; 2:28, 34).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는 ‘복되며’(눅 1:42),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복 되시다’라는 칭송을 받을 만하시다(마 21:9).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 전에 ‘축사’하셨고(막 6:41), 어린 아이와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막 10:16; 눅 24:50).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야 하며(눅 6:28; 벰전 3:9), 성도는 무조건적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을 동료 성도에게 하지만(고전 14:16), 거짓 선생들은 이익을 얻으려고 ‘아침하는 말’을 한다(롬 16:18). 보좌 위의 하나님과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계 5:12, 13; 7:12; 참고. Beyer, 1974: 754-763).

아래에서 명사 ‘복’ 혹은 형용사 ‘복되다’ 혹은 동사 ‘축복하다’ 혹은 ‘복을 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의 구절은 물론,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복과 관련된 사상이 나타나는 중요 구절들을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복음서의 복 개념: 산상설교의 8복을 중심으로

산상설교의 서론적인 8복은 마 23:13-30의 8화와 대조 된다. 각 사항마다 정확하게 대조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러하다. 줄 친 표현에 주목해 보라:

8복	8화
Maka,rioi oi` ptwcoi. tw/ pneu,mati( o[ti auvtw/n evstin h` basilei,a tw/n ouvranw/n) 복 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u>하늘나라</u> 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마 5:3)	Ouvai. de. u`mi/n( grammatei/j kai. Farisai/oi u`pokritai,( o[ti klei,ete th.n basilei,an tw/n ouvranw/n e;mprosqen tw/n avnqrw,pwn\ u`mei/j gar ouvki eivse,rcesqe ouvde. tou.j eivsercome,nouj avfi,ete eivselqe/i/n) 너희에게 화있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u>하늘나라</u> 를 닫아 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마 23:13).

6:24-26). 신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순종할 때 주시는 복과 그렇지 않을 때 내릴 저주를 상술한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복을 주셨다(삼하 7:29).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복 되었다(왕상 10:8). 시험을 통과한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욥 42:10-17), (정경 순서상)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로 시편을 시작 한다(시 1). 시편에서 복된 자는 여호와를 주님으로 모신 백성(시 33:12), 하나님을 알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시 65:4; 84:4),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시 112:1; 119:1-2; 128:1),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시 106:3), 사죄 받은 자(시 32:1-2), 약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시 41:1), 자녀가 많은 자(시 127:5), 주님께 훈련 받는 자(시 94:12) 등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들 중 특별히 이사야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연합할 때 복되다고 말하며(사 56:2),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사 56:2)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사 30:18; 단 12:12). 잠언에서 복된 자는 지혜를 발견하고 명철을 얻는 자(잠 3:13; 8:32; 14:21; 29:18),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이다(잠 16:20; 28:14).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환난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재건에 힘쓴 자들이 복 되었다(대상 4:9-10).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체결된 새 언약은 영육 간에 복된 것이었다(겔 37:22-32).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말 1:2). 특별히 구약의 복은 언약 백성이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편안한 가운데 많은 자손과 물질적인 풍성함을 받게 된다. 신약에도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 예수님에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는 복된 자이다(참고. Brown, 1997: 571-572, 759).

<p>maka,rioi oi` penqou/ntej( o[ti auvtoi. paraklhqh,sontai 복 되도다. 슬퍼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u>위로를 받을 것이기</u> 때문이다(마 5:4).</p>	<p>Ouvai. de. u`mi/n( grammatei/j kai. Farisai/oi u`pokritai,( o[ti katesqi,ete ta.j oivki,aj tw/n chrw/n kai. profa,sei makra. proseu,contai\ dia. tou/to lh,mywsqe perisso,teron kri.ma 너희에게 화있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너희가 <u>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u>(마 23:14).<sup>8)</sup></p>
<p>maka,rioi oi` praei/j( o[ti auvtoi. klhronomh,sousin th.n gh/n 복 되도다. 온유한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u>그 땅을 상속 받을 것이기</u> 때문이다(마 5:5).</p>	<p>Ouvai. u`mi/n( grammatei/j kai. Farisai/oi u`pokritai,( o[ti peria,gete th.n qa,lassan kai. th.n xhra.n poih/sai e[na prosh,luton( kai. o[tan ge,nhtai poiei/te auvto.n ui`o.n gee,nnhj diplo,teron u`mw/n 너희에게 화있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u>지옥의 아들</u>로 만들기 때문이다(마 23:15).</p>
<p>maka,rioi oi` peinw/ntej kai. diyw/ntej th.n dikaiosuhn( o[ti auvtoi. cortasqh,sontai 복 되도다. <u>의에</u> 주리고 목마른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마 5:6).</p>	<p>Ouvai. u`mi/n( o`dhgoi tufloi. oi` le.gontej( )Oj an ovmo,shl evn tw/  naw/  ( ouvden evstin\ o j dV an ovmo,shl evn tw/  crusw/  tou/ nau/( ovfei,lei 너희에게 화있도다. 맹인 된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u>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u>”라고 말한다(마 23:16).<sup>9)</sup></p>
<p>maka,rioi oi` evleh,monej( o[ti auvtoi. evlehqh,sontai 복 되도다. <u>공홀히</u> 여기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u>공홀히</u>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마 5:7).</p>	<p>Ouvai. u`mi/n( grammatei/j kai. Farisai/oi u`pokritai,( o[ti avpodekatou/te to. h`du,osmon kai. to. a:nhqon kai. to. ku,minon kai. avfh,kate ta. baru,tera tou/ no,mou( th.n kri,sin kai. to. e:leoj kai. th.n pi,stin\ tau/ta I`de.D e:dei poih/sai kavkei/na mh. avfie,nai 너희에게 화있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u>공홀</u>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마 23:23).</p>
<p>maka,rioi oi` kaqaroi. th/  kardial( o[ti auvtoi. ton qeon o:yontai 복 되도다. <u>마음이</u> 청결한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 5:8).</p>	<p>Ouvai. u`mi/n( grammatei/j kai. Farisai/oi u`pokritai,( o[ti kaqari,zete to. e:xwqen tou/ pothri,ou kai. th/j paroyi,doj( e:swqen de. ge,mousin evx a`rpagh/j kai. avkrasi,aj 화있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u>속은 착취와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u> 때문이다 (마 23:25).</p>
<p>maka,rioi oi` eivrhnpoiioi,( o[ti auvtoi. ui`oi. qeou/klhqh,sontai 복 되도다. <u>평화를</u> 사랑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 5:9).</p>	<p>Ouvai. u`mi/n( grammatei/j kai. Farisai/oi u`pokritai,( o[ti paromoia,zete ta,foij kekoniame,noij( oi[tinej e:xwqen me.n fai,nontai w`rai/oi( e:swqen de. ge,mousin ovste,wn nekrw/n kai. pa,shj avkaqarsi,aj 화있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u>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처럼</u> 보이기 때문이다 (마 23:29).</p>

<p>복 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마 5:9).</p>	<p>너희에게 화있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마 23:27).<sup>10)</sup></p>
<p>maka,rioi oi` dediwgme,noi e[neken dikaios,nhj( o[ti auvtw/n evstin h` basilei,a tw/n ouvranw/nÅ</p> <p>복 되도다. 의를 위하여 꺾박을 받는 자들아!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마 5:10).<sup>11)</sup></p>	<p>Ouvai. u`mi/n( grammatei/j kai. Farisai/oi u`pokritai,( o[ti oivkodomei/te tou.j ta,fouj tw/n profhtw/n kai. kosmei/te ta. mnhmei/a tw/n dikai,wn( kai. le,gete( Eiv h:imeqa evn tai/j h` me,raij tw/n pate,rwn h` mw/n( ouvk ah:h:imeqa auvtw/n koinwnoi. evn tw/  ai[mati tw/n profhtw/nÅ</p> <p>너희에게 화있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들을 장식하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날들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과 함께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마 23:29-30).</p>

8복(마 5:3-10)은 하늘나라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다.<sup>12)</sup> 이 복을 받는 것은 도달하기 불가능한 이상향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행할 때에 가능하다. 성도가 성령으로 행할 때 이 복을 받지만, 동시에 천국 백성이려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이기에, 존재론적인 복이기도 하다. 팔복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관점과는 반대되는 특별하고도 영원한 천국의 규칙이다. 8복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십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전인으로 고백하는 자이다(3절; 참고. 시 125:35:10). Calvin(1993: 247)은 이들을 역경으로 고통을 받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본다. 8복에 자주 등장하는 미래 동사와 달리 3절과 10절에서는 현재 동사(evstin)가 사용된다. 나머지 미래 시제 동사들도 현재적 함의를 가진다.

(2) ‘십령이 가난한 자들’과 무관하지 않는 ‘애통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죄와 고통에 대해 애통하는 자(참고. Calvin, 1993: 248; Van Bruggen, 1998: 20)와 넓게는 하늘나라가 세상의 불의로 인해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해 애통하는 자로 볼 수 있다(4절; 참고. 사 66:2; 롬 5:3).

(3)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소유할 ‘온유한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한 자이다

8) α, Β, D, L, Θ 사본 등과는 달리 다수사본은 마 5:13 ‘앞에’ 14절이 있는 이문을 지지한다.  
9) 마 5:6의 ‘의’와 마 23:16의 ‘성전의 금을 두고 하는 맹세’는 대조된다. 왜냐하면 후자는 공허한 구분(empty distinction)에 근거한 ‘불의(부당)한 맹세’이기 때문이다.  
10) 마 5:9의 ‘화평’과 마 23:27의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은 대조된다. 무덤 안의 죽은 자들의 뼈와 썩어가는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평은 1세기 유대인에게 정결(purity)과 관련된 가치였다. 왜냐하면 정결규례의 준수는 그 사회와 그 사회에 속한 개인들에게 번영(화평)을 가져다주는 반면, 그 규정의 위반은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이다(참고. Malina, 1999: 262).  
11) 마 5:11-12는 8째 복(마 5:10)의 부연 설명이기에, 독자적인 복이 아니다. 하지만 Viljoen(2008: 218)은 마 5:11을 9번째 복으로, 5:12를 10번째 복으로 보면서, 12절이 앞의 아홉 가지 복들의 결론이자, ‘세상의 소금과 빛’(13절)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 주장한다.  
12) 마 5:3-10의 o[ti로 시작하는 이유의 종속절들의 내용은 하늘나라를 묘사 한다(참고. Van Bruggen, 1998: 17). 참고로 영어 ‘Beatitude’는 라틴어 ‘beatus’(뜻: blessed, happy)에서 왔다.

(5절; 참고. 시 37:9-11; 마 19:29).<sup>13)</sup> 성경 전체는 ‘땅’(주권과 통치의 영역)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전투로 볼 수 있다. 구약에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안식년과 희년법에서 분명히 말씀하듯이(참고. 레 25:23), 신약에서는 땅의 상속(즉 천국과 영생의 상속)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임을 밝힌다.<sup>14)</sup> 온유한 자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가 그 땅을 소유 한다(참고. 사 1:19; 4:2-6; 11:11-16; 43:1-7; 51:11; 56:8).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6절)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이 없다(참고. 사 44:3; 55:1-5). 천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 통치는 갈망하는 자에게 해갈로 주어질 것이다.<sup>15)</sup>

(5) ‘공홀히 여기는 자들’(7절)은 하나님의 공홀을 먼저 깨달아 남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동정하는 이들이다(참고. 롬 11:30-12:1). 많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행 20:35).

(6) ‘마음이 청결한 자들’(8절)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진실 됨, 동기의 순수함, 내적체함과 외적 행위의 일치로 추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참고. 시 24:3-6; 요일 3:2; 계 21:23).

(7) ‘화평케 하는 자들’(9절)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참고. 사 9:6-7)의 수직적인 화평을 경험한 자인데, 하나님(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분쟁을 종식시키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sup>16)</sup>

(8)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10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통치)를 받을 것이다(참고. 벰전 4:12-19). 이런 사람은 ‘정의와 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악한 일을 거부하며, 선을 지키기 때문에 악인들의 원함과 분노를 사는 자이다(참고. Calvin, 1993: 251).

3절과 10절을 살펴보면, 8복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of ti auvtw/n evstin h' basilei,a tw/n ouvranw/n)로 시작하여 ‘하늘나라’로 마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복 중에 갈 5:22-23의 성령님의 9가지 열매와 중복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요,<sup>17)</sup> 하늘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이루어 가야할 성품과 삶의 모습이 8복과 성령님의 열매에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 삶 자체가 복이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삶은 천국 백성과 대조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상속할 하늘나라의 복과 무관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의 문을 막고, 공홀 없이 불의한 방법으로 약자의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화평을 제거하고, 위선적 삶과 잘못된 지식으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헛된 맹세를 일삼고, 내면의 동기와 행실이 청결한 자와 달리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껍데기만 준수하고, 경건의 능력

13) Calvin(1993: 248)은 온유한 자를 “해를 당한다고 쉽사리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심술부리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되갚기 보다는 모든 것을 인내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본다.

14) D사본은 4절과 5절의 순서를 바꾸었다. 이것은 아마 3절의 ‘하늘’과 5절의 ‘땅’ 사이의 병행 관계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15) Bible Works의 설명을 따르면, 의(dikaiosu,nh)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진다: (1) righteousness(마 5:6; 행 24:25; 빌 3:6; 딛 3:5), (2) religious requirement(마 3:15), (3) mercy(마 6:1; 고후 9:1), (4) justice(행 17:31; 히 11:33), (5) God's equitable way of dealing with humanity in grace(롬 1:17; 3:2; 5:17).

16) Van Bruggen(1998: 20)은 2-4째 복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5-7째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17) 마 21:9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호산나’와 ‘복되시다’(Euvloghme,noj)라는 환호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복된 왕이시다. 따라서 복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은 간과하고 외양에 집착하며, 의롭게 사는 성도를 박해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합리화에 바쁜 이들이 다.<sup>18)</sup> 그들에게는 심판만 기다릴 뿐이다.

## 2. 신약 서신의 복 개념

### 2.1. 바울이 이해한 복

#### 2.1.1. 롬 15:29

바울은 로마교회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plhrw,mati euvlogi,aj Cristou/)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무엇인가? 로마 교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상기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로마교회와 누리는 교제의 유익함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롬 1:11절의 신령한 은사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사역에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동반된 복들을 로마교회에게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이다(참고. Murray, 1984: 220).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복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한다.

#### 2.1.2. 고후 9:5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에게 고린도교회가 속한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준비를 이전부터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고후 9:2; 참고. 고후 8:6). 고린도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전에 약속한 헌금’(th.n proepggelme,nhn euvlogi,an<sup>19)</sup> u`mw/n, your gift of blessing previously promised)은 관대한 선물이란 뜻이다. 여기서 ‘헌금’을 직역하면 ‘복’인데, 관대함과 열정을 가진 심정으로 시행되는 구제는 그 대상자에게 복이다. 고린도교회가 바울에게 이전에 구두로 한 약속이 현재 완료 분사로 표현되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 한다(참고. Harris, 2005: 628).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보편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중심적인 복 이해이다.

#### 2.1.3. 갈 3:8-9

바울은 갈 3:8에서 구약의 한 구절(단수형 h` grafh.) 즉 창 12:3을 인용하는데(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VEneuloghqh,sontai evn soi. pa,nta ta. e;qnh),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갈 3:9).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교회의 대적인 유대주의자들의 다음의 주장에 답하고 있다: 만약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면, 갈라디아 교회도

18) 시리아 안디옥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마태공동체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진 디아스포라 불신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8복을 실천해야 했다.

19) 고전 16:1에서 이 헌금을 logei,a로 쓴다. 따라서 바울이 고후 9:5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인 euvlogi,a를 통해서 ‘언어유희’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즉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헌금이 ‘참으로 좋은’(euv), 혹은 ‘일등급’(first-rate), 혹은 ‘풍성한’(bountiful) 헌금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이다(참고. Harris, 2005: 628).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 복음을 전하다’(proeuaggeli,zomai)는 신약에서 8절에만 등장하고 LXX와 유대묵시문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미리 전하셨다는 사실로써 바울은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과 연합된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를 논박 한다(참고. Longenecker, 1990: 115).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할례자와 무 할례자의 조상이다(참고. 롬 4:11-12).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성도의 존재론적인 복 개념이다.

#### 2.1.4. 엡 1:17-19

엡 1:17-19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복 개념으로 충만하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pneu/ma sofi,aj kai. avpokalu,yewj)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17절). ‘영광의 아버지’(o’ path.r th/j do,xhj)라는 말에서 ‘영광’은 임재의 광채와 거룩(참고. 딤후 6:16) 그리고 능력(참고. 롬 6:4)의 성부 하나님과 관련 있다.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행하신 일(즉 자신의 영광)을 계시 하신다(참고. Snodgrass, 1996: 72).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람의 영인가? 아니면 성령님인가?(참고. NIV: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엡 1:8과 3:4-5, 16을 참고해 볼 때,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 하신다(참고. Thielman, 2010: 96; Snodgrass, 1996: 73). 바울의 기도는 계속 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들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sup>20)</sup>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 한다 (18절).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h’ evlpi,j th/j klh,sewj auvtou/)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참고. 롬 11:29; 엡 1:14; 4:1, 4; 5:5)와 영광스런 신부(참고. 엡 5:26-27)로 부름을 받은 소망이다. 그리고 ‘그분의 유업’(th/j klhronomi,aj auvtou/)은 다름 아니라 성도 자신인데, 하나님의 유업은 성도로 구성되어 있고 성도 안에서 발견되어 진다(참고. 신 4:20; 9:26; 시 33:12; 보라. Snodgrass, 1996: 74). 성도는 천국의 복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은 성도를 기업으로 삼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활동하심(evne,rgeia)을 따라<sup>21)</sup>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du,namij)의 지극히 크심(to. u’perba,llon me,geqoj)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도록 기도 한다(19절). 에베소교회가 성령님의 조명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무엇인가?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힘’, ‘능력’, ‘활동’이라는 비슷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분명한 모습은 20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볼 수 있다.<sup>22)</sup>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힘’이다(참고. Snodgrass, 1996: 75).

20) 엡 4:1과 4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윤리를 강조한다.

21) 19절의 한글 성경의 첫 부분(헬라어 원문에는 마지막 부분)을 직역하면, ‘그분의 힘(ivscu,j, strength)의 능력(kra,toj, power)의 활동(evne,rgeia, working)을 따라서’이다. 헬라 철학자들처럼 바울도 du,namij를 잠재력(potentiality)으로, evne,rgeia를 그 잠재력의 실제적인 작용(outworking)으로 구분했는지는 의문이다(contra Thielman, 2010: 100).

22) 히 6:7도 중요하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발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만(7절; 참고. 히 5:14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히 6:8). 이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로 하여금 적절한 성장을 하려는 열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이다(참고. Calvin, 1993: 138). 거둬들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

## 2.2. 베드로가 이해한 복

### 2.2.1. 벵전 1:4

벵전 1:4에 ‘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복 개념으로 충만하다. 베드로와 달리 유대인들은 4절에 언급된 복들을 미래 종말적으로 이해했다. 신약 성도가 받은 이 기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받았던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썩지 않는다’(aifqarton).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침략을 받아서 약탈당하고 황폐되었다(참고. 사 24:3-4). 그리고 이 기업은 ‘더럽혀지지 않는다’(avmi,anton).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 기업을 가증하게 여겼다(참고. 렘 2:7; 3:2). 하지만 신약 교회가 받은 산 소망과 구원 그리고 신령한 은사와 복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한다.<sup>23)</sup> 성도가 받은 기업은 ‘쇠하지 않는다’(avma,ranton). 이것은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가나안 땅은 이방인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파괴당하고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행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가뭄으로 쇠하기도 했다(참고. 렘 23:10).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마치 그림자처럼 불완전한 복이요 기업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신약 성도가 누리게 된 기업과 복은 산 소망 그 자체요 확실한 실재이다. 이런 확실한 소망과 복된 기업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베드로전서의 나그네 된 독자들은 소망과 위로를 받았다.

### 2.2.2. 벵전 4:14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 한다. 성령님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복된 자들에게(maka,rioi) 할 말과 지혜를 주신다(참고. 마 10:9 이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님(th/j do,xhj kai. to. tou/ qeou/ pneu/ma)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 2.2.3. 벵후 1:3

벵후 1:3에 ‘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복 개념으로 가득하다. ‘그분의 신성의 능력’(th/j qei,aj duna,mewj auvtou/)에서 ‘그분의’는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전달된 은혜는 곧 성자의 신성을 입증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참고. Calvin, 1993: 478). ‘경건’(euvsē,beia)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영적 생활의 특수한 은사로서의 도덕적 고결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참고. Calvin, 1993: 479).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zwh., 참고. 요 6:68)과 경건이 우리에게 와 있음도 알게 된다. 헬라와 로마제국에서 ‘경건’이란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예. 신, 부모, 조상, 친척, 사회 기구, 동료 시민)에게 충성하고 존경하는 것을 의미했다. 베드로가 이

23) 일부 유대 문헌(예. 1세기 후반의 4에스라서)도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 말한다. 유대 문헌은 그 보물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순종을 강조하지만, 벵전 1:4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방점이 있다(참고. Walton. 2010: 2024).

개념을 염두에 두었다면, 기독교의 경건은 성도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존경을 표하는 ‘의무’이다 (contra 벤후 2:5-7절의 경건치 않은 자들).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천국 시민의 명예이다.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sup>24)</sup> 3절의 하나님은 ‘Divine Benefactor’ 이시다.<sup>25)</sup> 3절의 ‘영광’(do,xa)과 ‘덕’(avreth,)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영광’(혹은 명성)은 하나님의 장엄한 현존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종종 주님의 부활과 연결 된다(참고, 벤후 1:2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신적 능력’으로만은 아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에 의해서 성취된 구원의 사역을 필요로 한다. ‘덕’은 성품의 탁월함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다(참고, Moo, 1996: 42-43).

### 2.3. 요한이 이해한 복

#### 2.3.1. 요삼 1:2

요한삼서 1:2에 ‘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복 개념으로 가득하다. 2절(VAgaphte,( peri. pa,ntwn eu:comai, se euodou/sqai kai. u'giai,nein( kaqw,j euodou/tai, sou h' yuch,)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네가 잘되어지고 건강하도록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sup>26)</sup> 요한은 요한삼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건강과 범사에 형통함을 약속하지 않는다. 반대로 요한은 건강과 범사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요한은 ‘너의 영혼’뿐 아니라 “네가(se) 잘 되어지기를 기도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잘되어지기를’(euodou/sqai)은 신적수동태이다.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잘되어 진다. 존재론적으로 성도는 죄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복된 존재이다. 이런 존재론적인 복과 더불어서, 요한은 가이오의 모든 것들(peri. pa,ntwn) 즉 범사를 위해서 기도 한다(참고, Zerwick, 1993: 736). 복 개념을 고찰할 때, ‘존재’와 ‘소유’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 2.3.2. 요한계시록의 복 개념: 7복을 중심으로

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등장한다. 사도 요한은 음녀 바벨론 성의 파멸과 대조시키려고 대부분 복을 계 14장 이후에 배치한다.

24) 3절과 관련하여, UBS 4판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ivdi,al do,xh| kai. avreth/|) 대신에, 오히려 ‘영광과 덕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di,a do,xhj kai. avrethj)이라고 기록한 사본들의 무게가 중요하다(예. 파피루스 72, B, 다수 사본). 필사가가 ‘자신의’(ivdi,al)와 ‘-를 말미암아’(di,a)를 혼동한 것 같다.

25) 이것은 한 가지 역사적 사실 곧 BC 167년 ‘아테네 집회’(Assembly of Athens)가 Pharnakes 1세에게 했던 약속 즉 ‘영광’과 ‘기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pa,nta) 그에게 주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지는 확실치 않다(참고, Green, 2008: 181-182).

26) 사도 요한 당시의 서신 머리말에 독자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흔한 것이다. 라틴어로 SVBEEV(‘si vales bene est; ego ualeo; 당신이 잘 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나도 잘 될 것입니다’)라는 약자 표기법까지 등장했다.

첫째 북	maka,rioj o` avnaginw,skwn kai. oi` avkou,ontej tou.j lo,gouj th/j profhteij,aj <sup>27)</sup> kai. throu/ntej ta. evn auvth/  gegramme,na( o` ga.r kairo.j evggou,j. 북 되도다(단수형).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계 1:3).
둘째 북	Kai. h:kousa fwnh/j evk tou/ ouvranou/ legou,shj( Gra,yon\ Maka,rioi oi` nekroi. oi` evn kuri,w  avpoqh, skontej avV a:tiÁ nai,( le,gei to. pneu/ma( i[na avnapah,sontai evk tw/n ko,pwn auvtw/n( ta. ga.r e;rga auvtw/n avkolouqei/ metV auvtw/n.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쓰라. 북 되도다(복수형).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여!” 하니, 성령님께서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셨다(계 14:13).
셋째 북	VIdou. e:rcomai w`j kle,pthjÁ maka,rioj o` grhgorw/n kai. thrw/n ta. i` ma,tia auvtou/( i[na mh. gumno.j peripath/  kai. ble,pwsin th.n avschmosu,nhn auvtou/.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북 되도다(단수형).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여!(계 16:15).
넷째 북	Kai. le,gei moi( Gra,yon\ Maka,rioi oi` eivj to. dei/pnon tou/ ga,mou tou/ avrni,ou keklhme,noiÁ kai. le,gei moi( Ou-toi oi` lo,goi avlhqinoi. tou/ qeou/ eivsinÁ 그 천사가 내게 “너는 쓰라. 북 되도다(복수형).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 받은 자들이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내게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 되신 말씀이다”라고 말한다(계 19:9).
다섯째 북	maka,rioj kai. a[gioj o` e:cwn me,roj evn th/  avnasta,sei th/  prw,th \ evpi. tou,twn o` deu,teroj qa,natoj ouvk e:cei evxousi,an( avllV e:sontai i` erei/j tou/ qeou/ kai. tou/ Cristou/ kai. basileu,sousin metV auvtou/ Íta.Đ ci,lia e;thÁ 북되고(단수형)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여!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계 20:6).
여섯째 북	kai. ivdou. e:rcomai tacu,Á maka,rioj o` thrw/n tou.j lo,gouj th/j profhteij,aj tou/ bibli,ou tou,touÁ 보아라, 내가 속히 온다. 북 되도다(단수형).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여!(계 22:7).
일곱째 북	Maka,rioi oi` plu,nontej taj stola,j auvtw/n( i[na e;stai h` evxousi,a auvtw/n evpi. to. xu,lon th/j zwh/j kai. toi/j pulw/sin eivse,lqwsin eivj th.n po,linÁ 북 되도다(복수형).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들을 빼는 자들이여!(계 22:14).

계시록의 7북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7과 연관 지을 때 ‘완전한 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8)</sup> 첫째 북과 여섯째 북은 내용상 일치한다. 따라서 계시록 전체는 ‘북 되도다’라는 표현으로 인클루시오 구조를 가진다. 말씀에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으며 살고, 깨어 근신하며, 어린 양이요 신부

27) 계 1:3의 ‘예언’(profhteij,a)은 미래를 ‘예언하는 계시’(predictive revelation)라기보다는, 윤리적 반응을 요구하는 ‘신적인 드러냄’(divine disclosure demanding an ethical response)이다. 이런 예언의 개념은 구약 선지자들이 그 당시 청중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로 말씀을 전하고 이차적으로 미래를 예언한 것에 상응한다(참고. Beale, 1999: 185).

28) 계시록의 수신자들의 박해자였던 음녀 바벨론 성의 파멸과 애가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계 18장에 “화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Ouvai. ouvai,( h` po,lij h` mega,lh( Babulw.n)라는 표현이 3번 등장 한다(계 18:10, 16, 19).

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거듭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왕 노릇하며 살며, 회개하며 사는 자가 복되다. ‘복 되도다’라는 말씀은 디아스포라의 불신 유대인들과 로마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다.

## 2.4. 요약

신약의 복은 ‘존재론적인 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8복을 서론으로 둔 산상설교는 하늘나라 백성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는 이미 복된 자가 되었기에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가 이미 받은 영광스러운 신분과 기업을 깨닫도록 기도했다. 바울처럼 베드로도 구약과 비교되지 않는 온전한 기업 그리고 생명과 경건을 이미 받은 성도가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자를 영광의 성령이 임하시는 복된 자로 본다.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의 존재가 잘되고 건강하도록 범사를 위해서 통전적으로 기도했다. 계시록은 7복을 통해서 박해 받던 수신자들이 박해를 견디도록 주로 영적인 복을 약속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AD 60년 전후로 하여 기록되었는데,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신약 기사는 주로 물질적인 번성이라는 복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영적이고 존재론적인 복을 강조한다. 물론 천국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한다.<sup>29)</sup> 신약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일등하고 출세하는 것, 어려움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 IV. 결론

약간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한국교회는 특목고나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승진하고,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불신자와 구분되지 않는 지극히 출세지향적인 복 개념이며 거짓 실용주의적 발상이다.<sup>30)</sup> ‘이미와 아직 아니’에 근거하여 천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많이 교육

29) 황창기(2010: 44)는 마 16:17-18(“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Maka,rioj ei=( Si,mwn Bariwna)]...”)을 설명하면서, 한국교회의 복 개념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한 달란트를 받았던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간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고백과 삶이 일치하도록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가고, 천국 열쇠들을 활용하는 것(올바른 말씀 해석 및 전파)이 참된 복이다.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되다.

30) 많은 한국 교회가 소위 ‘거룩한 실용주의’(sacred pragmatism)를 도입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려고 한다. ‘거룩한 실용주의’는 ‘세속적 실용주의’와 무엇이 다르며, 세속적인 것에 교회나 기독교의 옷을 입히면 거룩하게 변하는가? ‘실용주의’(pragmatism, 예. C.S. Peirce, W. James, J. Dewey, R. Rorty)는 단지 실용성만 중시하는 사조가 아니라, ‘의미, 진리, 지식 그리고 실재’에 대한 근본 원리이다. 그런데 실용주의의 근본 주장은 진리의 불명료성이며, 절충주의(eclecticism)이다. 실용주의는 인간 지식의 가치는 실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보기에, ‘만족, 효과, 기능, 경험, 자유’를 중요시 한다. 실용주의는 진리의 기준은 이론이나 명제의 작동가능성(workability)에 기초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신학에도 적용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성도에게 활력, 행복, 위로, 만족을 증진시켜 줄 때 진리라고 본다. 고대의 성경 메시지가 현대인에게 실용적이지 못하다면 진리로 대접 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볼트만의 비신화화 작업과 별 다를 바 없다. 이런 세속적인 실용주의 사조가 교회성장과 맞물린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부화된 성공의 신학의 두 부류 즉 ‘자기 존중의 신학’(theology of self-esteem, 혹은 ‘적극적 사고방식’)과 ‘번영의 신학’(prosperity theology, 혹은 ‘확신 운동’) 덕분이었다. N.V. Peale에 뿌리를 둔 R. Schuller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외쳤고, C. Finney에 뿌리를 둔 K. Hagin과 K. Copeland는 요삼 1:2같은 구절을 문자적으로 강조하면서 치유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천국 개념은 여전히 미래 중심적이다. 그러나 복 개념은 현세 중심적이다. 왜 이런 모순된 현상이 일어날까? 다수의 한국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미래적 천국과 영생 그리고 구원을 기대하며 산다. 따라서 여기 이미 임한 천국과 영생을 누림이라는 역동적인 생활이 약하다. 그러므로 미래적 천국 개념과 현세적 복 개념은 모순이 아니라 자연스런 연결이다. 언약 신앙이 약하므로, 하나님 자신이 성도에게 최고의 복임을 놓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도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복된 사람임을 간과한다.

무엇보다 벵전 4:14가 교훈하듯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임을 애써 무시하지 않는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위에 영광스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존(presence)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present)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에 언약 신앙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물질적이며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복을 주로 추구하는 한국교회를 교정할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구약에서 상대적 많이 강조하는 물질적 복 개념이 신약에서 어떻게 계시사적으로 발전되었는가를 간파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교에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며,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책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존재론적이며 영적인 복을 먼저 가르치는 복 개념을 숙고하는 사람에게 숙제로 남겨둔다.

---

번영과 적극적 고백을 강조했다. ‘성공의 신학’은 교회성장신학에 엔진을 달아주었는데, 그 결과 교회는 과도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강단을 시각적 효과로 가득한 쇼(show)로 바꾸어 비즈니스화 했다. 물론 16세기 교회개혁이 인쇄술의 발달을 잘 활용했듯이, 오늘날은 IT를 활용하여 교인의 구미에 맞게 시청각 아닌 입체적으로 알맹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가능한가? 교회가 문화센터로, 예배가 엔터테인먼트로, 시청각자료가 중세의 성상화 되지 않도록 성경적 원리 위에 계속해서 비평해야 한다. 교회는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을 먹이는데 더 충실해야 한다. 성경은 ‘실용’보다 ‘유효성’(effectiveness)을 evnergh,j(역사하는, 고전 16:9; 엡 2:2; 약 5:16)와 ivscu,w(쓸모 있는, 마 5:13; 갈 5:6; 몬 6; 히 4:12)로 표현한다. ‘성경적 유효성’(biblical effectiveness)은 목적(혹은 결과)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예수님의 허락과 교회의 대적자의 방해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참고. 고전 16:7, 9). 환언하면, 성경적 유효성은 천국의 지상 현현이며 핵심 기관인 교회가 성경과 그것의 원칙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효과적으로 대적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참고. 황성철, 2010; 이환봉, 2010: 4-5).

## 참고문헌

- 박철수 (1990). 『축복의 혁명』. 서울: 대장간.
- 이윤희 (2001). 『가계의 복과 저주전쟁에서 승리하라』.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 이환봉 (2010). “한국교회의 트로이 목마는 무엇인가?: 프래그머티즘.” *갱신과 부흥*, 7:3-8.
- 최중현(1993).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서울: 성광문화사.
- 황성철 (2010). “거룩한 실용주의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www.poinemics.org](http://www.poinemics.org). 접속: 2010년 10월 24일.
- 황창기 (2010). 『예수님, 만유, 그리고 나』. 서울: 생명의 양식.
- Beale, G.K. (1999).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 Becker, U. (1986). *Blessing*. in: C. Brown. ed., *NIDNTT*. Vol. 1. Grand Rapids: Zondervan(p. 206-217).
- Beyer, H.W. (1974). *euvloge,w*. in: G. Kittell. ed., *TDNT*. Vol. II. Grand Rapids: Eerdmans(p. 754-765).
- Brown, M.L. (1997). *yrev.a:*. in: W.A. VanGemeren. ed., *NIDOTE*. Vol. 1. Grand Rapids: Zondervan(p. 570-572).
- Brown, M.L. (1997). *%rB*. in: W.A. VanGemeren. ed., *NIDOTE*. Vol. 1. Grand Rapids: Zondervan(p. 757-767).
- Calvin, J. (1978). Matthew, Mark, and Luke. Vol. 1.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1993). 『공관복음 I』.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 ..... (1974). Hebrews, I & II Peter.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1993). 『빌레몬, 골로새,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 Green, G.L. (2008). *Jude & 2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 Harris, M.J. (2005).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 Horton, M. (2008). *Christless Christianity*. 김성웅 역(2009).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서울: 부흥과 개혁사.
- Longenecker, R.N. (1990). *Galatians*. WBC. Dallas: Word Books.
- Malina, B.J. (1993). *The New Testament World: Insights from Cultural Anthropology*. 심상법 역(1999). 『신약의 세계』. 서울: 솔로몬.
- Moo, D.J. (1996). *2 Peter, Jud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 Murray, J. (1984).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 Snodgrass, K. (1996). *Ephesian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 Thielman, F. (2010). *Ephes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 Van Bruggen, J. (1998). *The Sermon on the Mount: a Travel Guide for Christians*. Winnipeg: Premier Publishing.

- Viljoen, F.P. (2008). The double call for joy, "Rejoice and be glad" (Matt. 5:12), as conclusion of the Matthean macarisms. *Acta Theologica*, 1:205-221.
- Walton, J.H., Matthews, V.H., Chavalas, M.W. & Keener, C.S. (2000).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정옥배 외 역(2010). 『IVP성경배경주석』. 서울: IVP.
- Zerwick, M. (1993).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